

정부 원조사업 사후 평가를 위한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2007. 6

농촌발전연구센터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정부 원조사업 사후 평가를 위한 현지 출장 조사
2. 출장자: 정 기환 선임연구위원
3. 일시: 2007. 5 27 - 6.2
4.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및 보고르 지역
5. 주요 일정

일 시	주요 활동 사항	비 고
5. 27(일)	☐ 출국(Incheon → Jakarta) 15:05→20:10	KE 627
5. 28(월) 10:00	☐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KOICA 사무소 방문 ○ 면담자 : 인도네시아 대사 및 KOICA 소장 ○ 활동내역 - 평가 개요설명 - 인도네시아 경제협력 실태 및 향후 발전 방향 청취 - 한국의 인도네시아 농촌분야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 청취 - 본 사업 실시 결과에 대한 현지 사무소 평가 청취 - 관련 자료협조 요청	
14:00	☐ 인도네시아 농림부 식량작물원예청 방문 ○ 방문기관 : 식량작물원예청 ○ 면담자 : 식량작물원예청 국·과장 및 담당실무자 ○ 조사내역 - 인도네시아 농업분야 사업현황 청취 - 타 원조기관의 농업분야 원조실태 조사 - 동 사업에 대한 식량원예청 측의 평가 -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 - 한국과의 농업분야 추가협력 필요성 등 조사	
5. 29(화) 10:00	☐ 타 원조기관 방문 및 유사 프로젝트 비교분석 ○ 방문기관 : JICA, CIDA ○ 조사내역 - 수원국 관련기관과의 협조 현황 등 - 농업분야 지원정책 및 향후 추진방향	

5. 30(수) 09:00	☐ Bogor 군 Tenjo읍 사업현장 점검 ○ 방문기관 : 농업식량작물 사무국 ○ 면담자 : 농업식량작물 사무국 국장 및 관계자 ○ 조사내역 - 시범 영농단지 및 주요 지원시설 유지·보수 현황 - 지원 농기계 및 기자재의 적정성 및 사용현황 - 지원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여부 - 인니 정부측의 사후 조치(예산, 인력, 교육 훈련 등) - 파급효과(사회, 경제적 효과) 등	
5. 31(화) 10:00	☐ 보고르군 방문 ○ 면담자 : 농정국장 및 현지 농장 관련자 ○ 조사내역 - 시범농장의 운영 결과와 군의 평가 - 향후 계획 ☐ 보고르농과대학 방문 ○ 면담자 : Dr. Wawan Dan Desrial ○ 조사내역 - 보고르지역의 영농 관행 - 농업기계화의 실태와 전망 - 시범농장의 농기계 활용성 평가	
6.1(수)10:00	☐ 인도네시아 FAO 사무소장 방문 ○ 면담자 : FAO 사무소장 ○ 면담내역 - 인도네시아의 당면 농업 문제와 FAO의 활동 - 한국의 개발 경험의 인도네시아 보급과 관련한 FAO와의 협력 방안 ☐ KOICA 사무소장과 출장 결과 종합 및 협의	
	☐ 귀국(Jakarta → Incheon)	

II. 출장 결과

1. 출장 소감

- 인도네시아는 오랜 식민지의 유산으로 플란테이션 농업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식량은 아직도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한국 정부가 지원한 발작물중점개발

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음.

- 2002-2004가지 한국 정부가 원조사업으로 지원한 인도네시아 발작물 중점개발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지원한 원조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지역에 대한 농업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건지 지역의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부족한 식량자급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식량 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가 갖는 관심은 빈곤탈피와 농촌개발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음.
-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에서는 증가하는 대외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우리 연구원도 증가하는 농업분야 대외 협력사업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2. 사업 평가 주요 내용

2.1. 사업 추진의 타당성 평가

가. 수원국 수요 및 정책과의 연관성

- 인도네시아는 식민지 시대에 공업원료 중심의 플란테이션 농업(plantation farming)이 발전했기 때문에 1945년 독립 이후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왔음. 따라서 식량 자급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요한 당면 과제임.
- 협력단이 지원한 발작물 농업 중점개발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식량자급의 기반을 조성해 주고 선진 영농기술을 보급시키는 수단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는 과제라고 평가 됨.

나.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절성

- 협력단은 이 사업을 통하여 상업영농 도입으로 농가 소득 증대, 신품종 도입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 개선 및 생산성 증대, 시범단지 운영으로 인도네시아 밭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 기계화 영농기반 조성 이라는 목적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단이 시범농장 개발을 통한 소득작목 도입과 상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농장에 도입된 기술을 농민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밭작물 농업의 생산성과 소득을 향상 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한 것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평가 됨.
-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범농장에 도입된 소득작물과 선진 기술이 농가 포장에 시현되어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육 훈련의 예산 비중은 2.9%에 불과했음. 따라서 이 사업은 물리적인 농장개발에 계획의 중심이 두어졌음.
- 이 사업이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범농장 개발 이후에 도입된 소득작목과 재배기술의 농가 포장 이전을 위한 교육·훈련사업과 이러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교육·훈련사업 인프라 구축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는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했음.

1.2. 사업 추진의 효과성

가. 사업 목적의 달성도

- 이 사업은 텐조 시범농장 개발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건지 농업지대에 기계화 영농과 선진 영농기술을 도입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시범 농장 인근 농민들에게 선진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건지 농업지대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한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나. 사업 활동의 목표 달성 기여도

-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사업 내용으로 볼 때, 전문가 파견, 시범농장 개발, 연수생

초청, 기자재 공급, 계획된 농민 교육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 됨.

- 그러나 사업 목적 달성의 측면에서 보면, 상업영농 도입과 신품종 도입에 의한 품질개선과 생산성 증대에 관련된 활동이 미흡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이 보다 충실히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었어야 했음.

다. 목표 집단별 목적 달성 기여도

1) 수혜기관에 대한 기여도

- 이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기관은 서부 자바주의 보고르군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발작물 재배에 관한 선진 영농기술을 확보하고 보급하는 중심에 설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음.
- 보고르군은 시범농장에 도입된 선진 농업기술과 소득작목,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농촌지도 조직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보다 발전시켜 2017년까지는 서부 자바주의 발작물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센터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2)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 협력단이 지원한 발작물 농업 중점개발사업은 건지 농업지대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 중 일부 기술이 농가에 보급되어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 농민들이 소득작물 중심으로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선진 영농 기술을 실현할 경우 농가 소득은 2~3배 이상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수원국에 대한 기여도

- 협력단이 지원한 발작물 농업 중점개발 사업은 발벼와 옥수수 등 주곡의 증산과 함께 소득작목 도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인도네시아 농업발전과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발작물 농업 중점개발 시범사업을 통하여 건지 농업지대에 적합한 영농 시스템과 교육 훈련 시스템의 도입 및 훈련시설을 갖추게 되었음은 향후 인도네시

아 건지 농업지대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1.3.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가. 수원 행정 체계

- 보고르군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밭작물 농업 중점개발사업단 운영 규정을 작성하고 농장운영단을 조직하였으며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장장을 지정하여 발령하고 농장운영단의 핵심 요원을 군청 소속 공무원 대우를 받는 농장 고용원으로 채용하여 농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농장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2004년 12월, 협력단의 지원이 종료된 후 시범농장은 보고르군의 한 조직으로 편입되었으며 보고르군청과 서부 자바주 및 농업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범농장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당초 수원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농장 사무소 등 시설이 예정대로 지원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협력단의 사업 체계

- 본 사업은 협력단에서 직접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하고 농기계 등 필요한 농기구와 자재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등 협력단 본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체제로 운영되었음.
- 본부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본부 직원의 전문성을 살려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사업계획 변경이나 승인 과정에서 경직성이 나타났다고 평가됨.

다. 사업의 산출물 달성 정도 및 완성도

- 이 사업의 주요 산출물은 연수생 초청 연수, 농기계 공급, 전문가 파견, 시범농장 개발 및 시설물 설치 등으로 사업 계획에 제시된 대로 하자 없이 산출물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의 특성상 산출물은 이러한 시설 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의

성과, 보급된 신품종, 보급된 신 기술,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가 소득 증대 등에서 찾아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출물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없었음.

- 텐조 시범농장은 6ha 규모로 작은 편이지만 소득 작물의 전시, 선진 영농 기술과 증수 요인을 전시할 포장을 확보했고 농장이 개발 된 이후 지난 2년간 많은 공무원과 학생들이 이 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 농장이 향후 보고로군은 물론 서부 자바주의 밭작물 농업 중점개발센터로 기능하기에는 농장의 면적과 시설이 매우 협소한 것으로 평가됨.

라. 사업 실시 기법의 유용성

- 시범농장에 도입된 기술 중에서 석회시용, 균형 시비 등은 농민들이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이었고 점적관수, 비닐 멀칭 재배법 등은 유용한 기술이지만 취약한 농가경제를 감안할 때, 즉각 보급되기 어려운 기술로 평가되고 있음.
-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범농장을 개발하여 현대적 영농시설을 도입하고 환금성 작물을 재배하며 시범농장에 도입된 선진 영농기술을 농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각종 영농기술의 연시 및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것은 현지 실정에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시범농장에 도입된 선진 영농기술이 관련 공무원이나 농민에게 전달하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이 사업이 텐조 시범농장 개발에 역점을 둔 나머지 농장에 도입된 소득작물과 선진 영농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업생산성 증대와 소득증대를 가져오게 하는 교육 훈련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마. 사업 관리 체계의 효율성

- 영농전문가가 파견된 이후 2003년 9월 까지 농장의 기본 시설을 갖추는데, 그리고 2004년 9월까지의 농장 사무소와 강의실 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행정 절차, 계획 수정, 승인 요청 등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했음. 따라서 농장 개발 이후 작부체계 개선이나 신품종 도입, 선진 영농기술의 대농민 전파 등 영농 전문가로서의 임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 됨.

-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현지에 파견된 전문가와 협력단 사이에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통로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사업 종료 이후에는 사업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음. 그러나 협력단 현지 사무소가 텐조 시범농장에 봉사단원을 파견하여 사업추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간접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인 것으로 평가됨.

바. 사업활동의 계획대로의 이행 여부

- 농장 개발의 측면에서 보면 계획된 사업들이 사업 기간 내에 종료되었으므로 계획한 사업들이 기간 안에 차질 없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 됨.
- 그러나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2002년 9월에 실시협약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R/D를 체결하였으며 사업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이 2002년 11월에 작성되고 동년12월 22일에야 영농 전문가가 파견되는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많은 차질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 됨.
- 영농 전문가가 선진 영농기술을 시범농장에 도입하여 이를 농가에 보급하는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농장 설계 등 농장의 물리적 계획을 담당할 전문가가 별도로 파견되어 영농 실시 이전에 농장 개발이 완성되었어야 마땅한 것으로 평가 됨.

1.4. 사업의 파급 효과

가. 사업의 상위 목표 달성 가능성 및 긍정적 효과

- 본 사업은 이 사업 실시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의 상위 목표인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소득 증대, 발작물의 품질 개선 및 생산성 증대, 발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 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보고르군의 교육 훈련 사업비 부족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 보급 기관인 농촌도소와 텐조 농장이 보고르군 농림국 안에 각각 다른 조직으로 남아있어 농장 운영과 지도사업이 유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시범농장에 도입된 기술과 장비 등이 농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선진화된 것으로 농민이 적용하기에 어려운 기술과 장비들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조 시범농장에 보급된 농기계와 자재 및 시설 등은 향후 인도네시아가 지향해야 할 밭작물 농업개발의 기준과 목표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됨.

나. 사업의 역량 개발 및 제도 강화 기여도

- 텐조시범 농장의 개발과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르군은 물론 농업부에서도 인도네시아 건지 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범농장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
- 보고르 군은 텐조 시범농장 운영 팀을 보고르 군 농림국의 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서부자바주의 밭작물 농업 중점 개발센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1.5. 지속 가능성

가. 시설 및 장비 관리 유지 가능성

- 본 사업은 사업 주관 기관인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시범농장 관리기관인 서부 자바주의 보고르 군이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 관리와 농장 운영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업 관리와 시설 유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나. 자립 발전 가능성

- 보고르군은 텐조 시범농장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의 3단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보고르 군이 추진하는 텐조농장 중장기 발전계획은 서부자바주와의 협의를 거쳐 농업부에 정식으로 제안될 예정으로 있어 자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3. 사후 관리 및 후속 조치의 필요성

- 현재의 텐조 농장은 협력단이 2년간 전문가를 파견하여 어렵게 농장을 개발한 결과로서 그 성과가 좋아 보고르 군이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음.

- 따라서 밭작물 농업기술의 전파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설정과 이의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협력단이 지원하고 인도네시아 측에 이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와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등의 사후 관리 조치가 필요함.
- 협력단이 텐조 농장의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한 농민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되므로 텐조 농장의 운영과 교육·훈련 사업이 효율적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4. 교훈 및 제안 사항

가. 교훈점

1)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실시계획

- 농업분야 협력사업은 IT나 건설업과 달리 수원국의 기후와 토양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지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영농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문가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임.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 전문가가 파견될 경우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 향후 수원국의 농업분야 개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지 농업전문가와 한국의 농업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루어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의 발굴과 해결 방안을 논의한 다음 사업 수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2) 사업 목적과 수단의 구체화와 측정 지표 제시

- 인도네시아 밭작물 농업 중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제시된 사업 목적은 매우 추상적이고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움.
- 따라서 사업실시계획에 제시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means)과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verifiable indicator)가 제시되어야 함.

3) 파견된 전문가의 임무

- 농업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적격 전문가를 선발하여 적격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 이 사업에서도 영농 전문가를 선발하여 24개월간 파견하였지만 영농 전문가의 활동 중 많은 부분이 농장 설계와 물리적 시설 개발에 투입되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초래되었음.

- 따라서 다양한 사업목적을 지니고 전문가가 파견될 경우 각각의 목적을 수행할 전문가를 선발하여 적기에 파견하여 한 분야의 사업 지체가 다른 분야 전문가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분야 전문가의 파견 시기 및 업무수행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함.
- 만약 물리적인 농장 개발이 조기 완성 된 다음에 영농 전문가가 파견되었다면 영농 전문가는 곧 바로 영농 준비에 착수하여 예정된 대로 선진 기술의 도입과 농민 교육에 보다 충실히 활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4) 사업 기간과 수행 절차

- 농업분야 협력 사업은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행되기도 어렵고 그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사업 기간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함.
- 밭작물 농업 중점개발사업의 경우 시범농장 개발은 2002-2004년까지 3개년이면 충분하지만 도입된 영농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기대하려면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야함. 따라서 선진 영농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 구축과 영농기술을 농가에 전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업기간이 필요함.

5) 수요자 중심의 협력 사업 실시

-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구축, 건지 영농활동의 다양화, 소득작목 도입과 마케팅 기술 지원, 그리고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훈련사업 지원을 요청하였음.
- 그러나 실시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목적은 상업영농 도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신품종 도입에 의한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시범단지 운영을 통한 신기술 보급, 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 등으로 이러한 목적을 시범농장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따라서 수원국이 요청한 사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 발작물 농업 중점개발사업은 농장의 물리적 시설물 건축이나 기자재 공급의 차원을 넘어서 선진 영농 기술의 농가 보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교육 훈련사업 같은 소프트웨어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음.

나. 제안사항

1) 추가 사업 지원

- 2002-2004기간에 지원된 인도네시아 발작물 농업 중점개발사업은 텐조 시범 농장 개발로 생산기반은 확고히 형성된바 이를 바탕으로 도입된 선진 영농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농민들의 영농 활동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 구축이 긴요 한바 이를 위해 발작물 농업개발 훈련 센터 지원 사업을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사업 수행 방법 개선

- 인도네시아 발작물 영농 중점개발사업과 같이 현장에서 전문가의 판단하에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경우 이를 본부에 보고하고 일일이 승인을 받기 보다는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III. 주요 면담자

○ Ms. Ir. Risida Yulita, MM

- 인도네시아 농업부 식량작물청 과장으로 중앙 정부의 사업 책임자
- 텐조 농장의 성과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평가, 사후 관리를 위한 조치,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면담 조사 (2007. 5. 29)

○ Ms. Ir. Noviana Enimarlupi

- 보고르군청 농림국장으로 사업시행기관의 책임자
- 2007. 텐조 농장의 사후관리 대책, 향후 발전 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르 군청 관계 관과 함께 면담(2007. 5. 31)

○ Mr. Ir. H. Supriadi M. Sc. (보고르군 농림국 총부기획고장), Ms. Ida Sriwidaningsih (텐조 농장장), - Ms. Syarifah Sofiah(보고르군 경제과장), Mr.

Ir. Yan Mulyana, MM(농촌지도소 텐조사무소 부소장) 외 3명

- 텐조농장 운영과 농민 교육 훈련 사업의 성과, 예산조치 등에 대해 면담
- 텐조 농장의 시설, 재배 작물과 작황 등에 대해 농장 시찰 (2007. 5. 30~31)

Dr. Wawan Hermawan Dan Desrial (보고르 농대 교수)

- 보고르 농대 농공학과 교수로 텐조농장의 농기계이용에 관한 연구 수행
- 인도네시아 건지 농업지대에서 농기계 이용의 효용성에 대해 논의하고 농장의 기계화 작업, 인도네시아 농민들의 영농 기계화 작업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 (2007. 5. 31)

다. 지역 농민

- Mr. Untuk Tetari, Mr. Eli Pangyal, Mr. Abdul Mntid, Mr. Tera Kertana, Mr. M. Hisan, Mr. Sena, Mr. Amdri, Mr. Nanag Ruhimat
- 텐조 농장을 통해 학습한 영농 기술, 작부체계 개선 효과, 농기계 영농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 면담 조사
- 이들이 학습한 기술 중에서 석회시용, 점적 관수, 소득작물 중심의 작부체계 개선이 가장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 됨.

다. 협력단 현지 사무소

- 이종선 소장
- 나현 부소장
- 박상준 봉사단원(텐조농장 주재)

라. 국제기구 사무소

- CIDA 프로그램담당자 Mr. Hari M. Basuki 외 1명
- J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차장 Mr. Mizno Takashi 외 1명
- FAO 인도네시아 사무소 소만호 소장